

# 국어 음성상징어의 형태 · 음운적 확장과 축소\*

김형수

(전주대학교)

**Kim, Hyung-Soo. (2014). Sound Symbolism in Korean: The morpho-phonological patterns of extension and redu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4), 275-296. Although most Korean dictionaries regard e.g. 'talkatak' and 'asasak' as related to 'talkak' and 'asak' by reduction, some linguists regards the latter as the base and derives the former by extension with '-tak' (talkak>\*talkak-tak>talkatak) or partial reduplication (asak>\*asak-sak>asasak). Shin (1998: 35), for example, derives 'kachicak' from 'kachil-cak' with /l/ elided before the coronal /c/, while Lee (1998: 149-150) relates, e.g. 'mancak' to 'mancicak' by 'coalescence', which drops the medial syllable /ci/. Such conflicting views call for a systematic reanalysis of Korean sound symbolic word formation, which this paper presents in three patterns of extension and reduction: 1) morphological extension, e.g. *talkak*>\**talkak-tak*>*talkatak*; 2) morphological reduction, e.g. \**okil-sikil*>*oksikil*; 3) phonological reduction by syncope, e.g. *alisoŋ* > *als'oŋ*. These patterns of extension and reduction, though previously overlooked, show a well organized interaction between morphology and phonology.

**주제어(Key Words):** 음성상징어(sound symbolism in Korean), 형태 · 음운적 확장과 축소 (morpho-phonological extension and reduction), 중첩(reduplication), 합성어축소(compound reduction), 이화작용(dissimilation), 중간모음탈락(syncope)

## 1. 서론

서로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음성상징어들 간의 관계를 확장으로 볼 것인지 축소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른 여느 형태·음운적 연구에서처럼 어근과 접사를 이루는 기저형과 적용

---

\*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09년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재정리한 것이다. 당시 본인의 발표에 참석해 많은 질문을 해 준 청중과 본 논문을 심사한 세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본 논문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엄철주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만 본 논문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이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된 음운규칙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요구한다. ‘달각-달가닥’이나 ‘아삭-아사삭’과 같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 예들의 경우 두 상징어 짝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가는 결국 이들 중 어떤 형이 기본형이고 어떤 형이 도출형인 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하여 각각의 가정에서 요구되는 음운규칙에 의한 분석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달가닥’과 ‘아사삭’ 등의 긴 형태를 기본형으로 잡고 짧은 형인 ‘달각’과 ‘아삭’을 이 기본형들로부터 축소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첫 예에서는 끝음절의 /다/, 두 번째 예에서는 /사/의 탈락이 이루어 져야 한다. 반면에 ‘달각’과 ‘아삭’처럼 짧은 형태가 기본이라는 가정에서는 긴 형인 ‘달가닥’과 ‘아사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와 /사/의 첨가가 필요하다.

위에서 ‘어떤 식으로든’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 첨가나 탈락이 음운규칙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위와 같은 음성상징어들 간의 확장과 축소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들에서 일어나는 음운규칙 뿐 아니라 접사첨가나 부분중첩 등에 의한 형태적 확장이나 일부 합성어나 완전중첩형이 형태적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달가닥’이 ‘달각’으로, ‘아사삭’이 ‘아삭’으로 축소한 것으로 본 첫 번째 가정에서 어떻게 /다/와 /사/가 탈락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지양(1998: 149-150)은 ‘달각-달가닥’을 포함한 아래 (1)과 같은 예들의 관계를 ‘악/억’을 접미사로 가지고 있는 ‘굽질-굽지력’ 등의 예와 구별하면서 전자의 예들은 후자와는 달리 접미사에 의한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약 ‘달가닥’이 접미확장의 경우라면 ‘악’이 결합되지 않은 원래 어근은 ‘달간’이어야 하지만 ‘달각’으로 나타나는 점, ‘만지작/만작’의 경우 접미사에 의한 확장이 아니고 오히려 어중의 ‘지’가 탈락된다는 점 등을 들어 축소의 일종인 ‘융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 (1) 만지작만지작: 만작만작  
 잘카닥잘카닥: 잘각잘각  
 달가닥달가닥: 달각달각  
 옥시글옥시글: 옥실옥실  
 글그렁글그렁: 글경글경  
 도도룩도도룩: 도둑도둑  
 야기죽야기죽: 야죽야죽  
 빼그덕빼그덕: 빼겨빼겨

이러한 견해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이들의 관계를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정의한 것과는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왜 ‘달가닥’과 같은 예에서는 끝음절의 /다/가 탈락되나 ‘만지작’과 같은 예에서는 중간 음절인 /지/가 생략되는 지와 이들의 탈락이 음운규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형태적 축소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삭·아사삭’의 관계가 ‘융합’과 같은 축소에 의한 도출이라면 왜 /사/가 탈락해야 하는지, 어느 음절에서 그러한 탈락이 일어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달각·달가닥’과 ‘아삭·아사삭’의 관계가 축소가 아닌 확장이라면 어떠한 형태·음운적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확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만약 ‘달가닥’이 여기 ‘달각’에 ‘소곤닥’ 등에서처럼 접미사 ‘닥’이 첨부되어 형성된 것이라면 왜 \*‘달각-닥’에서 첫 번째 /ㄱ/의 탈락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음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아사삭’의 경우 여기 ‘아삭’의 끝음절이 중첩에 의하여 반복된 경우라면 왜 표면형이 \*‘아삭-삭’이 아닌 ‘아사삭’인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두 상징어 짝들이 모두 확장의 예들이라면 왜 ‘달가닥’의 경우는 접사 ‘닥’에 의한 확장이 일어나고 ‘아사삭’의 경우는 어말 부분중첩에 의한 확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결코 간단치만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가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의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

첫째, 지금까지는 ‘달각·달가닥’의 예만 보았으나 이 음성상징어 짝과 어원적으로 분명 관련이 있는 ‘달그락’은 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 예 역시 축소가 일어나 ‘달각’이 되는 것인가? 혹은 ‘달각’에서 또 다른 접미사 ‘락’이 첨가되어 확장된 것인가? \*‘달각-락’ < 달그락’을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1)에 있는 음성상징어 짝들은 모두 축소가 아니면 확장의 관계로만 해석되는가? 이중 어떤 짝들에서는 축소가 일어났고 어떤 짝들은 확장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만지작’의 경우 송철의(1993: 189)에서처럼 동사어간 ‘만지-’에 접미사 ‘작’이 붙어서 확장이 일어났으나 ‘만작’은 이 확장형에 /지/가 탈락하여 다시 축소가 일어난 것일 수 있는가?

셋째, 위의 경우와 관련하여 서로 관련된 짝의 경우에 꼭 짧은 형과 긴 형만이 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글그렁-글경’이나 ‘달그락-달각’의 경우 접미사 ‘렁’이나 ‘락’을 인정한다면 어기가 ‘글그-’와 ‘달그-’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경우 이 상징어 짝들은 단순한 확장이나 축소가 아니라 공유하는 어기에 각각 다른 접미사가 붙어서 확장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인가?

넷째, 이러한 질문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말에 일어나는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분석이 국어의 형태 및 음운론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필자는 본 논문의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말 음성상징어에 일어나는 확장과 축

소의 유형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아직 미해결의 문제가 그 만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자가 수행한 우리말 음성상징어와 중첩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어도 박창원(1993), 이문규(1996), 신중진(1998), 이지양(1998) 등의 선행연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음성상징어의 확장 and 축소

국어 음성상징어들 간의 관계는 그 유형에서 확장 and 축사로 그리고 유형발생의 원인에서 음운적 요인과 형태적 요인으로 대별되고 이들은 다시 각각 형태나 음운규칙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2) 국어 음성상징어의 확장 and 축소 유형

#### 가. 형태적 요인

##### 1) 형태적 요인에 의한 확장

1.1) 중첩에 의한 확장: 아삭>\*아삭-삭>아사삭

1.2) 접사에 의한 확장: 굵질>굵질+억>굵지력

##### 2) 형태적 요인에 의한 축소: \*오글시글>옥시글

#### 나. 음운적 요인

##### 1) 음운적 요인에 의한 확장 (예 없음)

##### 2) 음운적 요인에 의한 축소: 아리송>알쏭

다만 음운론적 요인의 경우 확장의 예는 발견되지 않고 주로 ‘아리송-알쏭’과 같은 축소의 예들이 있을 뿐이나 형태론적인 확장이나 축소가 일어난 예들에서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들은 자주 발견된다.

### 2.1. 형태적 요인에 의한 확장

#### 2.1.1 중첩에 의한 확장

중첩에 의한 확장은 완전중첩과 부분중첩으로 나뉘고 이중 부분중첩은 다시 접두중첩의 경우와 접미중첩의 경우로 나뉜다.

(3) 중첩에 의한 확장

가. 완전중첩

빵-빵빵

아삭-아삭아삭

떼굴-떼굴떼굴

나. 부분중첩(접두)

떼굴-뻑떼굴

등실-두등실

다. 부분중첩(접미)<sup>1)</sup>

빵-빠방

팡-파방<sup>2)</sup>

아삭-아사삭

주룩-주루룩

따릉-따르릉

쩌렁-쩌러렁

주루루-주루루루

위의 예들 중 부분중첩의 경우에는 어기의 CV(C) 반복이 일어난 후에 다음의 (4)의 예들에 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의 음운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4)

\*빵-빵>빠방

\*팡-팡>파방

\*뻑-떼굴>뻑떼굴

\*등-등실>두등실

- 
- 1) 학자에 따라 이 예들을 접미중첩으로 보지 않고 내부중첩(internal reduplication)으로 보기도 하나 형태론적으로 접요중첩(infixal reduplication)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우리말에는 접요사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내부중첩에 의한 분석은 Chung (1997) 참조. 접미중첩에 의한 분석의 예로는 Jun (1994), Kim (2003) 참조.
  - 2) ‘빵-빠방, 팡-파방’은 접두중첩과 접미중첩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으나 후치사위주인 우리말에 접두사가 없다는 특성상 접미중첩으로 분류한다. (나)의 접두부분 중첩의 경우도 이미 Kim (2009)에서 주장한 바대로 접두중첩이라고 보다는 ‘떼굴떼굴’과 같은 완전중첩에서 형태적 축소 (morphological reduction)가 일어난 것이다.

\*아삭-삭>아사삭

첫 번째 규칙은 /ㄱ/과 /ㅇ/이 자음군 안에서 연달아 일어날 때 그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이화작용의 규칙이다.

### 5) 자음군 이화작용 (Kim 2003)

KCVK{C,#} → CVK{C,#} (K=/ㄱ/, /ㅇ/)<sup>3)</sup>

이 규칙은 ‘아사삭’이나 ‘두등실’의 경우에는 적용되나 ‘뽕떼굴’의 경우에는 두 번째 /ㄱ/이 자음군이나 어말에 있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아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이미 이승녕 (1960)에서 ‘평양>피양, 공양미>고양미, \*종용히>조용히, 생강>새양>생’ 등에서 주목한 바 있으며 Kim (1995)에서 좀 더 세밀화 시켜 우리말 /ㄹ/불규칙 변경의 설명에 확대 적용시킨바 있다.

신중진(1998)에서는 ‘\*달각-다>달가닥’과 같은 예에서 ‘다’의 초성이 폐쇄음이므로 ‘폐쇄음 연쇄제약’에 의하여 선행음절의 폐쇄음 /ㄱ/이 탈락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왜 같은 규칙이 ‘뽕떼굴’과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둥-등실>두등실’의 경우 폐쇄음의 연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ㅇ/이 탈락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할 수 없다. 반면에 위의 규칙 (5)는 이 두 예들을 자음군의 이화작용이라는 자연스러운 음운규칙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방언이긴 하지만 국어에 이미 존재하는 음운규칙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뽕-빠방’이나 ‘팡-파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첩이 일어난 음성상징어에서 경음이나 격음이 소위 후두자질을 상실하여 평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중첩이 일어난 경우에만 일어난다. 둘째, 평음화는 모음과 모음사이에서만 일어난다. 예를 들면 ‘뽕떼굴’의 경우 중첩이 일어나서 첫 번째 조건이 만족 되었으나 경음 /ㄷ/이 모음과 모음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평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음과 모음 사이는 자음의 약화(lenition)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이다. 그러나 이 환경에

3) 이 규칙은 그 동안의 한국어 부분중첩 규칙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한 것이나 지면관계상 이들을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유감이다. 다만 심사자 한분이 지적한 문제, 즉 (4)의 예를 여기서와 중첩사간의 위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자는 부분접미중첩 후 이 예들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ㄱ/과 /ㅇ/의 탈락과 /ㅁ/이 유성의 /ㄷ/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음운론적인 문제로 정의하고 이를 ‘음운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와 중첩사간의 위상의 차이를 이용한 설명은 설혹 그 설명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음운론적인 문제를 형태론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 꼭 모든 경음과 격음이 약화되어 평음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 아빠, 아프다 등. 그러면 왜 하필 중첩이 일어난 음성상징어의 경우에만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일까? 이는 이화작용 특히 그라스만의 법칙(Grassmann's Law)과 같은 자음군 간에 일어나는 이화작용의 메카니즘이 같은 류의 격음이나 경음이 연달아 일어날 때 그 중 하나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ChVCh'이나 'CVC'와 같이 후두자질을 가진 같은 자음이 연달아 일어나면 이 중 하나가 약화하여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라스만의 법칙이 적용되는 많은 예들이 그렇듯이 중첩과 같은 형태규칙은 이러한 자음군 이화작용을 일으키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중첩이 일어난 우리말 음성상징어에서 격음과 경음의 평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그라스만의 규칙에서와는 달리 평음화하는 격음이 모음과 모음사이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는 곧 자음군 탈락규칙과 모음간에서 일어나는 자음약화규칙이 서로 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운규칙간의 시너지(synergia) 작용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sup>4)</sup>

이문규(1996)에서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어의 음장이 첫음절에만 유지됨을 들어 초후두자질이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제약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예외가 많은 관계로 유지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결국 첨가된 초성자음이 선명시(prespecification)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반면에 신중진(1998: 22)은 '음운론적 이유'는 언급하기 어려우나 음성학적 근거로 '일단 CVCCVC --> CVCVC 와 같은 규칙의 적용에 따른 음절연쇄의 변화로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자음의 음성적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너지 개념을 이용한 설명은 이러한 비음운론적 장치나 예외에 의존하기 보다는 음운규칙간의 협동작용(synergia)을 이용한 음운론적 설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1.2 접사에 의한 확장

접사에 의한 확장은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접미확장으로 나타난다.

### 6) 접미사에 의한 확장

가. 접미사 -악/억/양/영에 의한 확장

꿈질-꿈지락

주물-주물럭

몽긋-몽그작

머뭇-머무적

4) /Ch/나 /C'/와 같은 후두자질을 가진 자음을 자음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하나의 자음이지만 내부에 두 요소가 들어있는 이중적 구조이므로 일반화된 이화작용의 설명에서 자음군 이화작용의 예들로 본 것이다. Kim (2003); Kim (1991) 참조.

## 구붓-구부정

나. 접미사 -닥/덕/당/덩에 의한 확장

달각-달가닥

빼각-빼거덕 (빼그덕)

달강-달가당

텅강-텅가당

딱각-딱까닥

잘강-잘가당

앵강-앵가당

쟁강-쟁가당

다. 접미사 -락/럭/랑/렁에 의한 확장

달각-달그락

갈강-갈그랑

꼼작-꼼지락

바삭-바스락

아창-아치랑

깨작-깨지락

간닥-간드락

또닥-또드락

(6가)에서 ‘몽긋-몽그작’과 같은 예들을 단순한 접미사 ‘악’의 첨가로 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ㅅ/과 /ㅈ/은 음절 말에서 /ㅅ/으로 중화되기 때문이다. 홍운표(2004)에 의하면 현대국어 ‘송긋’은 ‘술’과 ‘긋’의 합성어로서 15세기에 ‘술웃~ 술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음절 말 /ㅈ/이 /ㄷ/이 아닌 /ㅅ/으로 중화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5)</sup>

5) Kim (2006) 참조. 심사자 한분께서 /ㅈ/이 어말에서 /ㅅ/으로 중화됨은 15세기 정도까지만 존재했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16세기 이후에는 ‘몽긋’이 [몽근]으로 받음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몽그작’에서 ‘-악’이 첨가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몽긋>몽긋의 변화가 15세기까지는 일어났음이 밝혀져야 하고 ‘몽그작’도 16세기 이전에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함을 지적하였다. 좋은 문제제기이나 음성상징어의 특성상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헌자료가 대부분인 우리말 역사자료에서 ‘몽긋-몽그작’의 변화를 문헌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몽긋-몽그작’은 어간을 /ㅅ/말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긋-어긋적/은 /ㅈ/말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표면상 후자는 확실히 ‘-악’에 의한 확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것 또한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왜냐하면 193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는 ‘몽긋몽긋-몽그적몽그적’은 수록돼 있으나 ‘어긋어긋-어긋적어긋적’은 보이지 않고



이문규(1996)에서 꼬깃>꼬기작, 배틀>배트작 등과 꾸불>꾸불텅, 떠듬>떠듬적 등을 비교하면서 전자는 원형태의 어말 자음이 탈락되나 후자의 경우 그렇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전자에서 ‘ㄹ’이 ‘ㅈ’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은 국어에 있으나 ‘ㅅ’이 이러한 환경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보통 ‘ㅅ’이 음절 말에서 중화되어 /ㄷ/으로 날 것인데 이런 경우 /ㄷ/과 /ㅈ/이 만나 경음이 되었을 것이다. 즉 ‘꼬기작’으로 되었어야 할 것이다. 예: 가웃-둥>가우똥’.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몽긋-몽그작’과 같은 예들을 접미사 ‘악’의 첨가에 의한 확장으로 분석한다.

(6나)의 예들은 모두 (3다)의 예들에서처럼 자음군 이화작용 (5)가 적용되는 예들인데 이 예들은 몇 가지 점에서 부분중첩인 후자의 경우들과 매우 닮았다. 원래 자음군 이화작용은 ‘딱깅’이나 ‘속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의 모든 어휘에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나)와 (3다)에서는 이 음운과정이 매우 규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능면에서도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삭아삭’과 ‘아사삭’의 함축적 의미의 관계는 ‘달각달각’과 ‘달가닥’의 어감과 같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음성상징어들의 분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다. 국어에서 접미부분중첩은 (7)과 같은 조건에서 일어나는데 (3다)의 예들은 모두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고(‘뽕>뽕방’과 같은 단음절 어기의 경우 (7가)의 조건만 만족시킨다) (6나)의 예들은 모두 이 조건을 어기고 있다. 이 상보적 분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7) 접미부분중첩의 조건 (Kim 2003; Kim 2006)

- 가. 어기가 자음으로 끝나면 그 자음은 연구개음 /ㄱ/이나 /ㅇ/으로 끝날 것.
- 나. 중첩되는 음절이 설단음 /ㄷ, ㅈ, ㅅ, ㄹ/을 초성으로 가질 것.
- 다. 중첩되는 음절을 선행하는 모든 음절들이 열려 있을 것.

Kim (2005)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듯이 (6나)의 접미사 ‘닥’은 주로 (7)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음성상징어 여기에 붙어서 접미부분중첩이 하는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중첩연구(Alderete et al. 1999)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고착음에 의한 중첩(reduplication with fixed segmentism)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경우 ‘닥’은 원래 ‘소곤소곤-소곤닥’이나 ‘수근수근-수근닥’에서처럼 반복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었으나 음성상징어 중 의성어의 경우 부분중첩의 역할을 대신하는 데 전용(exaptation)된 것이다(Lass1990). 주로 중첩된 음성상징어에만 적용되는 (5)의 이화작용규칙이 ‘\*달각-닥>달가닥’과 같은 예에서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6다)의 예들은 (6가,나)의 예들과는 달리 모두 단순한 접미사의 확장으로는 설명되지 않

---

‘어긋적거리다~어기적거리다’만 나오기 때문이다. 즉 ‘어긋’이 ‘어기적’에서 ‘-악/역’의 접미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후형성(back formation)의 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는 예들이다. 왜냐하면 어기 ‘달각’에 접미사 ‘락’이 첨부되었다면 표면형이 ‘달그락’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규칙 (5)가 적용되면 ‘\*달각-락>달가락’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6)</sup> 그렇다면 ‘달각-달그락’과 같은 예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상징어 짝이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를 ‘\*달그-’라고 가정하면 ‘달각’은 이 어근에 (6가)에 서처럼 접미사 ‘-악’이 붙으면서 어근의 끝모음 /으/가 탈락한 것이고 (\*달그-악>달각), ‘달그락’은 같은 어근에 접미사 ‘락’이 첨부된 것이라고 보면 ‘달각-달가닥-달그락’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예들은 접미사 ‘락’이 ‘닥’과 상보적 분포에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 (8) 접미사 ‘닥’과 ‘락’에 의한 확장

달각-달그락-달가닥  
 덜걱-덜그럭-덜거덕  
 달강-달그랑-달가당  
 덜경-덜그렁-덜거딩  
 댕강-댕그랑-댕가당  
 텅강-텅그렁-텅거딩  
 잘각-잘그락-잘가닥  
 잘강-잘그랑-잘가당  
 뺱강-뺱그랑-뺱가당  
 쟁강-쟁그랑-쟁가당

이는 마치 ‘걷다-걸어’와 같은 ‘ㄷ’ 불규칙 동사에서 /ㄷ/이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ㄹ/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달가닥’은 ‘달각’에 ‘닥’이 붙어서 나온 것이므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달그락’은 ‘달그-’에 ‘락’이 붙은 것이므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ㄷ/이 /ㄹ/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문규(1996:51)에서 이 처럼 두 종류의 형태 확장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서로 다른 어기, 즉 ‘달가+ㄱ’과 ‘달+악’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 분석은 ‘달가’와 ‘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달그락’과 ‘달가닥’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없다.

6) 심사자 한분이 ‘달가락’도 가능하다 하였으나 이는 ‘달그락’의 잘못된 표현인 듯하다. 만약 이 형태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후에 설명할 ‘뺨그닥’처럼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신형(neologism)’일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닥/덕’ 접미사로 인한 확장이 ‘뺨격’(\*뺨격-덕>뺨거덕)뿐 아니라 ‘\*뺨그’에도 적용되고 있듯이 ‘-락/럭’에 의한 확장 또한 /\*달그/외에 ‘달각’(\*달각-락>달가락)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형태들에 대한 빈도수조사를 통한 세심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음성상징어 중에는 (8)처럼 ‘닥’과 ‘락’에 의한 확장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래 예들처럼 이 중 하나가 없는 경우가 있다.

(9) ‘닥’이나 ‘락’에 의한 확장 (\*\*은 비존재형을 가리킴)

가. ‘락/랑’에 의한 확장

갈강-갈그랑-\*\*갈가당

글경-글그렁-\*\*글거덩

꿀짜-꿀찌락-\*\*꿀짜다

꼼작-꼼지락-\*\*꼼자다

나. ‘닥/당’에 의한 확장

왈각-\*\*왈크랑-왈카다

빼격-\*\*빼그럭-빼거덕

딱각-\*\*딱끄락-딱까다

벌렁-\*\*벌르렁-벌러덩

꿀걱-\*\*꿀끄럭-꿀꺼덕

찰씩-\*\*찰씨락-찰싸다

솔락-\*\*솔르락-솔라다

(9가)의 경우는 소위 고착음(fixed segmentism)에 의한 부분중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고 (9나)는 ‘왈각’이나 ‘빼격’ 등의 어기자체가 접미사 ‘악’이나 ‘영’이 붙지 않은 어근이기 때문이다 (Kim 2005: 314). (9가)의 ‘꿀찌락’이나 ‘꼼지락’은 어근 ‘\*꿀쯔’와 ‘\*꼼즈’에 ‘락’이 붙은 것인데 모음 /으/가 치조구개음 뒤에서 /이/로 전설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2.1.3. 부분중첩과 접미사 부착이 같이 일어난 경우**

이 경우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들은 비록 그 수가 많지 않으나 국어음성상징어의 확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래 (10)의 예들이다.

(10)

파닥-파드닥-파다닥

푸득-푸드득-푸드득

‘파다닥’과 ‘푸드득’은 ‘파닥’과 ‘푸드’이 (5)의 부분중첩의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접미중첩이 일어난 후 (7)의 이화작용규칙이 적용된 경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파다닥’과 ‘푸드득’은 이 어기들의 어근인 \*파드- 와 \*푸드-에 어말부분중첩이 일어나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악’이 첨부된 것(\*파드-드-악, \*푸드-드-억)으로 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단순히 접미사 ‘닥’이 첨부된 것이라면 (8)의 ‘달그락’ 등의 경우나 아래 (11)의 경우처럼 /ㄷ/이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ㄹ/로 변하여 ‘\*\*파드락’, ‘\*\*푸드룩’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푸드-가 어근임은 어말 CV중첩형 ‘푸드드’에서도 확인된다. 박창원(1993: 29)에서 이처럼 확장형인 것은 분명한데 둘째 음절의 모음과 셋째 음절의 모음이 달라지는 예들을 근거로 음절의 구조에서 초성과 중중성이 분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는데 위와 같이 부분중첩후 접미사 ‘악/억’이 붙은 것이라면 우리말 음절구조를 밝히는 예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아래 (11)의 예들은 (10)의 경우와는 달리 중첩이 일어난 것(\*그르-르-영>그르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순히 접미사 ‘닥/덕/당/덩’이 첨가된 것(\*그르-덩>그르렁)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이다.

## (11)

그렁-그르렁  
가랑-가르랑  
짜랑-짜르랑  
쩌렁-쩌르렁  
차랑-차르랑

다만 ‘그르렁’이 ‘그렁’으로부터 단순 접미부분중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순한 접미부분중첩이면 ‘그렁그렁>\*그렁-렁>그러렁’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르렁’이라는 확장형의 존재는 ‘그렁’ 또한 단순형태소가 아니라 어기 ‘그르-’에 접사 ‘-영’이 첨부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아래의 예들 또한 단순부분중첩으로 설명될 수 없다.

## (12)

아작-아지작, 아지직  
으적-으지적, 으지직  
배착, 배칠-배치작  
비척, 비칠-비치적

위의 예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아작-아지작, 아지직’이 단순 부분중첩의

예라면 ‘아작-아자작’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나 이 예들은 모두 그러한 예가 아니다. 둘째, 위의 확장 형태들은 모두 그 중간음절이 /ㅈ, ㅊ/과 같은 치조구개음을 두음으로 그리고 /이/모음을 음절의 핵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들이 겹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렁-그르렁’의 예와 매우 유사함을 직감할 수 있다. 즉 이 예들은 ‘그르-’와 마찬가지로 어기가 매개모음 /으/로 끝나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오는 경우에 \*아즈-악>아작 등에서처럼 탈락한다는 점과 \*아즈-즈-악>\*아즈작>아지작으로 어말 CV부분중첩에 의하여 확장이 일어난다는 점이 같다. 다만 국어사에서 잘 알려진대로 이 매개모음 /으/는 아춤>아침,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개치조음뒤에서 /이/로 변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위의 분석은 다음의 예들에서 그 정체를 더 확실히 드러내 준다.

(13)

아창, 아칠-아치랑  
 어청, 어칠-어치렁  
 꿀짜-꿀찌럭  
 꿀쩍-꿀찌럭  
 꿈적, 꿈질-꿈지럭  
 난작, 난질-난지락  
 는적, 는질-는지럭

‘아칠-아치랑’은 ‘-앙’에 의한 접미사 확장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창’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 음성상징어의 어기가 ‘아즈’이며 여기에 접미사 ‘-앙’, ‘-을’이 첨부되어 확장된 후 위의 /으/-전설모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4)

\*아즈-앙>아창  
 \*아즈-을>\*아츨>아칠  
 \*아즈-을-앙>\*아츨랑>아치랑

다음의 예들은 위의 예들과는 달리 어간이 /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다.

(15)

가칠-가치작  
 거칠-거치작

왜냐하면 ‘\*\*가찰, \*\*거찰’과 같은 음성상징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이들은 각각 ‘가찰/거찰’과 같은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작’이 붙은 경우이다. 여기에 속하는 또 다른 예로는 ‘비틀-비트적, 배틀-배트적’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이 예들은 국어에 잘 알려진 치음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경우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배찰-배치작’의 예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2.2. 형태적 요인에 의한 축소

국어에는 합성어의 경우 아래의 예들에서처럼 특별한 음운규칙의 적용 없이도 축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16)

어숫비숫-엇비숫  
가지가지-갓가지  
고루고루-골고루

이 예들은 모두 합성어 혹은 완전중첩된 단어의 첫 요소가 ‘CVC’로 줄어들면서 축소가 일어난 예들이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음성상징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7)

\*오글-시글>옥시글 (cf. 오글오글, 시글시글)  
\*와글-시글>왁시글 (cf. 와글와글, 시글시글)  
\*드글-시글>득시글 (cf. 드글드글, 시글시글)  
\*우글-시글>옥시글 (cf. 우글우글, 시글시글)  
\*와글-다글>왁다글 (cf. 와글와글, 다글다글)

‘옥시글’이나 ‘왁다글’ 같은 예들은 원래 ‘\*오글-시글’과 ‘\*와글-다글’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위의 ‘엇비숫’에서처럼 그 첫 어기를 ‘CVC’로 축소하여 생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성어의 형태적 축소는 완전중첩과 부분중첩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위에서 우리는 ‘뽕뽕굴’이나 ‘주루룩’을 부분중첩에 의한 확장의 예로 정의하였으나 상응하는 완전중첩의 예들과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축소의 경우로 볼 수도 있다.

(18)

데굴데굴-텍데굴  
 등실등실-두등실  
 주룩주룩-주루룩  
 따릉따릉-따르릉  
 찌렁찌렁-찌러렁

완전중첩의 예들도 합성어의 일종이므로 어두부분중첩의 경우 어두로부터 ‘CVC’를, 어말부분중첩의 경우 어말로부터 ‘CVC’를 선택하여 형태적 축소형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의 예들 중에는 ‘CVC’대신에 ‘CV’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이화작용규칙 (4)가 적용된 결과이다.<sup>7)</sup>

끝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도 접미사 ‘닥’을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로 간주하면서 같은 축소규칙을 적용한 결과인 듯하다.

(19)

소곤-닥>속닥  
 수군-닥>속덕

이 예들은 모두 두 형태요소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음성상징어의 긴 형태가 짧은 형태로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모두 첫 형태소의 ‘CVC’를 택하는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글그렁’과 ‘갈그랑’은 위에서 ‘글경’과 ‘갈강’과 비교하여 어근 ‘글그’와 ‘갈그’에 접미사 ‘랑/렁’이 첨부된 것으로 보았으나 ‘그렁그렁-글그렁’에서와 같이 형태론적 요인에 의한 축소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갈가랑’은 같은 규칙으로 설명하려면 ‘글경’에 상응하는 \*‘글강’을 상정하여서 ‘글강글강-글그랑’과 같이 형태론적 축소가 일어난 후 /으/의 음절 위치에 따른 구현에 의하여 ‘갈그랑’이 된다고 설명해야만 한다. 현대국어 ‘값다’가 중세국어에서 ‘굶다’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분석 또한 가능해 보인다.

### 2.3. 음운적 요인에 의한 축소

음성상징어의 형태적 확장이나 축소 후에 음운규칙의 적용이 일어날 수 있음은 이미 언

7) 이 예들 중 특히 접두중첩으로 간주되는 ‘텍데굴, 두등실’과 같은 예들은 형태적 축소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착어인 알타이어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접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im (2009) 참조.

급한 바 있다. 다음의 예들은 이러한 형태적 확장이나 축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음운규칙에  
만 의지하여 일어난 축소의 예들이다.

## (20)

아리송&gt;알쏭

바르작&gt;발짝

이기죽&gt;익죽, 이죽

야기죽&gt;약죽, 야죽

‘아리송-알쏭’의 상징어 짝을 중간모음탈락(syncope)에 의한 축소의 예로 보는 데는 우선 상  
징어 ‘아리아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국어에서 /ㄹ/이 치조구  
개음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은 음성상징어에서도 적용하는데 ‘아리송-알쏭’ 과 ‘바르작-발짝’  
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예들에서 /ㄹ/이 뒤에 오는 치조구개음과  
중간모음 탈락이 일어난 후에야 인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술-나무>소나무, \*바늘-질>바느  
질’ 등은 모두 /ㄹ/과 치조구개음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중간모  
음탈락에 의하여 ‘바르작’에서 ‘발짝’으로 축소된 후에야 인접이 일어난 이 예들이 /ㄹ/탈락  
규칙에 예외가 됨은 이해가 된다.

‘이기죽-익죽’과 ‘야기죽-약죽’ 또한 같은 중간모음탈락에 의한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축소형들이 위의 이화작용규칙을 겪어서 ‘이죽, 약죽’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예들  
은 비록 ‘\*달각-다>달가닥’이나 ‘\*아삭-삭>아사삭’에서처럼 이화작용이 의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위에서 언급한 ‘공양미~고양미’에서와 같이 수의적으로 일어난 경우이  
다.

이 같은 중간모음탈락에 의한 축소의 또 다른 예로 ‘혈레벌떡’과 ‘혈레발떡’을 들 수 있겠  
다. 이들 합성어의 첫 부분은 음성상징어 ‘혈혈, 할할’등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들이 분명한  
데 이들은 Kim (2008)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그 기저형이 ‘\*허르-’와 ‘\*하르-’일 개연성이 있  
다. 이 어기가 어말 부분중첩과 함께 접미사 ‘업’과 부사형 접미사 ‘이’가 첨가 되어 ‘\*허르-르  
-업-이>\*허르러비>\*허르러이>\*허르레>혈레’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다음의 예들 또한 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축소로 보이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21)

옥시글&gt;옥실

왁시글&gt;왁실

득시글&gt;득실

육시글&gt;육실



왜냐하면 ‘왁다글>\*\*왁달’에서는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ㄱ/이 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음운론적 축소로 보고자 한다면 이 규칙은 ‘시글>살’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규칙인데 다 현대국어에서 /ㄱ/이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예들은 단순히 음운 혹은 형태적 요인에 의한 확장이나 축소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이다.

(22)

<u>완전중첩</u>	<u>부분중첩</u>
살:살	사르르
돌:돌	도르르
줄:줄	주르르
활:활	하르르

이 예들은 채완(1986)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완전중첩과 부분중첩 형태들이 같은 어기를 공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그 어기의 형태가 ‘\*살’ 과 ‘\*사르’ 중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Kim (1984)은 전자로 보고 부분중첩의 경우 \*살의 끝자음 ‘ㄹ’이 ‘\*살>\*살-ㄹ>사르르’에서 처럼 먼저 겹자음화한 후 /으/삽입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말에서 음성상징 어기의 끝자음 /ㄹ/이 겹자음화하여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살:살’과 같은 완전중첩의 경우 첫음절이 길게 발음된다는 점이다. 배주채 (2003)은 이 음장을 음성상징어에 일어나는 ‘표현적 장음’의 경우로 보았으나 Kim (2008)의 분석에 의하면 이 음장은 음운론적인 것으로 판명났다.

그러면 완전중첩에서는 모음이 길게 나는데 반하여 부분중첩에서는 짧게 나는 (22)의 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역시 문제는 기저형이 무엇인가 하는 데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래 짧은 모음이었으나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면 보상적 장모음화와 같은 음운과정에 의하여) 길어졌을 가능성과 원래 긴 모음이었으나 어떤 음운과정에 의하여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전의 분석과는 달리 네 가지의 기저형의 가능성이 있게 되어 분석이 더욱 복잡해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여 반드시 분석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불규칙동사에서도 같은 음장의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3)

갈:다	걸어
돕:다	도와

Ramsey(1978)는 위 예들에서 장모음이 나타나는 이유로 이 동사들의 기저형이 ‘\*거드-’와 ‘도브’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 /으/가 탈락하면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24)

거드-다	거드-어	
“	거더	모음탈락: V → Ø/ ___ + V
견:다	“	중간모음 /으/탈락과 보상적 장음화
“	거러	‘ㄷ-변격’에 의한 변화

이러한 분석은 (22)의 경우도 기저형 \*/사르/, \*/도르/ 등이 먼저 어말에서 /으/탈락을 겪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화가 일어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를 ‘살:살’과 ‘사르르’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사르	사르	
사르-사르	사르-르	(완전 및 부분) 중첩
사르살	사르-르	어말 /으/ 탈락
사르살:	사르:-르	보상적장음화
살:살:	사르:르:	(완전 및 부분) 중첩
살:살	사르르	비어두음절 단모음화

위의 도출과정에서 중첩이 또 다시 적용되는 이유는 Wilbur(1973)의 동일성제약(identity constraint)에 의한 것이다. 즉 중첩은 국어에서 생산적 과정으로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어서 여러 음운과정에 의하여 파괴된 중첩소간의 동일성이 중첩의 재적용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르/뒤에서 적용되는 어말모음탈락규칙(apocope)은 우리말에서 더 이상 생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러시아 우주정거장의 이름인 ‘미르(Mir)’와 같은 최근의 차용어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8) (25)의 도출과정이 ‘비현실적으로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의 설명에서 기저형에서 표면형까지의 과정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저자는 현대음운론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도출과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도출과정은 음운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이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물론 도출의 순서가 역사적 변화를 차례대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25)에서 중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형태론 규칙으로서 적용되는 중첩규칙의 지속성(rule persistence)을 보여주기 위함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습득과정’과 연관시켜

(25)의 도출과정이 흥미로운 것은 음성상징어가 중첩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형태적 확장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말 /으/탈락으로 인한 음운적 축소가 일어나자 다시 Wilbur(1973)의 동일성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첩이 일어나 또다시 형태적 확장이 일어났는데 완전 중첩 후 음운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그 변화가 \*사르-사르에서 '살:살'로 변해 표면상으로는 축소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 3. 결론과 남은 문제들

지금까지 분석한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의 예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달각-달가닥'은 축소가 아닌 어말부분중첩에 의한 형태적 확장의 경우이다. \*달각>\*달각-다>달가닥. 이들의 관계를 본말(달가닥)과 준말(달각)의 관계로 본 이지양(1998)과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어사전의 견해는 수정이 필요하다.

나. '달각-달그락-달가닥'은 모두 음성상징어 \*달그-를 공유한다. '달각'은 이 어기에 접미사 -악이 첨부되어 확장된 경우이고 (\*달그-악>달각) '달그락'은 같은 어기에 접미사 -다이크이 첨부되어 확장된 것인데 /ㄷ/불규칙동사의 경우에서처럼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ㄷ/이 /ㄹ/로 변했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달가닥'은 어간이 '달각'이므로 역시 같은 어기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어간에 접미사 '-다이크'이 첨부되어 확장된 것이다 (\*달각-다>달가닥).

다. \*뽕-뽕>뽕뽕, \*광-광>과광, \*달각-다>달가닥, \*둥-둥실>두둥실, \*뚱-뚱굴>뚱뚱굴, \*아삭-삭>아사삭 등의 경우 자음군 이화작용규칙에 의하여 중첩으로 인해 확장된 \*CVC-CVC연쇄가 CVCVC로 축소되었다. 이 경우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격음과 경음은 이화작용과 모음간 자음약화(lenition), 두 음운과정간의 시네르기적 협동에 의하여 후두자질이 탈락되어 평음화 한다.

라. 형태적 요인의 경우 확장(달각-달가닥)과 축소(\*오글-시글>옥시글)가 모두 발견되나 음운적 요인의 경우 주로 수의적 축소만 발견된다(아리송>알송, 옥시글>옥실 등).

마. \*사르사르>살:살은 어기 \*사르-가 중첩에 의한 확장이 일어났으나 어말 /으/탈락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와 같은 음운적요인과 Wilbur(1973)의 동일성제약(identity constraint)과 같은 형태적 요인에 의한 축소가 일어난 과도적용(overapplication)의 예이다(Kim

---

의미를 부여하는 '최적성 이론'의 제약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둔다. 일반적으로 본고의 도출과정은 음운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고 그 순서가 역사적 변화의 순서와 일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공식적 문제만 다를 경우에는 언어습득과 관련하여 내재하는 화자의 언어규칙을 반영할 수도 있다.

2008).

다음은 본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예들이나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모아 본 것이다.

가. 다음과 같은 국어 음성상징어의 예들은 상호간 같은 어기를 공유하는 점은 확실하나 그 관계가 확장인지 축소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실기죽-실쪽, 썰기죽-썰쪽, 알기죽-알쪽 이긋-이기죽, 다복-다보록, 더복-더부룩, 도둑-도도룩, 자욱-자우룩, 자욱-자오룩, 잘뚝-잘뚜룩

나. ‘삐걱-삐거덕’은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삐그덕’도 쓰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전에는 ‘삐거덕’만 등록되어 있고 ‘삐그덕’은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일부 사전에서 북한어로 등록돼 있다.

동아일보 인터넷 검색: 운남지구 조합원끼리 삐그덕

최인훈 <구운몽>: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다. 지중 양철이 유난히 삐그덕 거린다.

문제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삐그덕’이 자연스러운 구어표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점이다. 우선 ‘삐걱’이 ‘삐거덕’으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삐그럭’이나 ‘\*\*삐그덕’이 어려운 이유는 어기 자체가 ‘\*삐그’가 아니라 ‘\*삐걱’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기가 ‘\*달그’인 ‘달각, 달그락, 달가닥’에서와는 달리 ‘-락/럭, -닥/덕’의 첨부에 의한 확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삐그덕’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소곤-소곤’과 ‘소곤닥’에서 처럼 생산적인 접미사 ‘-닥’이 새롭게 붙으면서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9)</sup>

한편 ‘찌걱, 찌그럭, 찌그덕’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찌거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찌그럭, 찌그덕’은 둘다 북한어로 돼 있다. 그렇지만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찌그덕’도 ‘삐그덕’과 마찬가지로 구어에서 새롭게 쓰이는 듯하다.

최인훈 <구운몽>: 늙은이 삐마디처럼 건물 마디마다 찌그덕 거린다

‘찌걱’의 어기는 ‘\*찌걱’과 ‘\*찌그’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두 어느 경우도 ‘찌그럭’과 ‘찌그덕’은 가능하게 하면서 ‘\*\*찌거덕’은 제외시킬 수 없다. 우선 ‘\*찌걱’이 어기 일 때를 보면 당연히 ‘\*찌걱-덕>찌거덕’으로 ‘-덕’에 의한 확장이 가능해야 하지만 ‘\*\*찌거덕’

9) 다만 이러한 추정이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심사자 한분이 지적한 대로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수조사를 통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은 어느 사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빠거덕’처럼 ‘\*\*찌거덕’도 가능했다면 ‘찌그덕’ 또한 ‘빠그덕’처럼 최근에 소용되기 시작한 신조어(neologism)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저형이 ‘\*찌각’이라는 가정에서는 ‘찌그락’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형태는 위에서 누차 본 대로 기저형이 ‘\*달그, \*찌그’처럼 모음으로 끝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저형이 ‘\*찌그’라고 가정하면 ‘\*\*찌거덕’이 없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설명되나 ‘찌그락’과 ‘찌그덕’이 공존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분석대상이 된 사전의 자료와 실제 사용되는 자료간의 괴리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해석과 더불어 음성상징어의 형태·음운적 확장과 축소 연구에서 장차 좀 더 세밀히 다루어질 문제이다.

## 참고문헌

- 박창원. (1993). 현대 국어 의성 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새국어생활*, 3(2), 16-53.
- 배주채. (2003). *한국어의 발음*. 서울: 삼경문화사.
- 송철의. (1993). *국어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 총서 18, 국어학회.
- 신중진. (1998).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국어연구 154.
- 이문규. (1996). 상징어의 형태확장, *한글*, 234, 35-60.
- 이승녕. (1960). 중기어의 이화작용의 고찰, *이승녕 국어학 선집* 3, 서울: 민음사.
- 이지양. (1998).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학총서 22. 서울: 태학사.
- 채완. (1986). *국어 어순 연구*. 국어학회.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윤표. (2004). 국어자료 말뭉치 구축 현황과 활용 방안. *2004 겨울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학회, 11-51.
- Alderete, J., Beckman, J. Benua, L., Gnanadesikan, A., McCarthy, J., & Urbanczyk, S. (1999). Reduplication with fixed segmentism, *Linguistic Inquiry*, 30(3), 327-364.
- Chung, C.-W. (1999). *Reduplication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Kim, H.-S. (1991). *Universal phonological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of dissimilation, cluster simplification, and their synergy for consonant cluster reduction in Romance and Indo-European langu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Vancouver, Canada.
- Kim, H.-S. (1995). Dissimilation of liquids in the so called ri-and rə-irregular predicates in Korea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 (pp. 395-410).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Kim, H.-S. (2003). A new look at partial reduplication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9(2), 353-380.
- Kim, H.-S. (2005) The so-called reduplication with fixed segmentism revisited.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1(2), 295-322.
- Kim, H.-S. (2006) The underlying bases for reduplicated and sound symbolic words in Korean: The so-called emphatic suffixation revisited.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1(2), 207-232.
- Kim, H.-S. (2008). The full vs. partial reduplication in Korean sālsal and salili: a case for over- and under-application, *The Perspectives of Linguistics in the 21st Century*,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421-426.
- Jun, J. (1994). Metrical weight consistency in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Phonology*, 11, 69-88.
- Kim, Y.-S. (1984). *Aspects of Korean morph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Lass, R. (1990). How to do things with junk: Exaptation in language evolution, *Journal of Linguistics*, 26, 79-102.
- Ramsey, S. R.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Seoul: Top Press.
- Wilbur, R. (1973) *The phonology of redupl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Indiana.

김형수

560-759 전북 전주시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전화: (063) 220-2313

이메일: csjennykim@hanmail.net

Received on October 10,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5, 2014

Accepted on December 5, 2014